

외국의 단설대학원 설치 사례

오 성 삼

전국대 농업교육과 교수

□ □

1. 들어가는 말

전 통적으로 대학원 교육은 특정 분야의 연구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자신이 터득한 지식을 전수하는 이른바 학자 양성 기관으로 자리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학원 교육의 기원은 12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석사 학위가 주로 인문과학 분야의 학문 수련 과정이었던 데 비해, 박사 학위는 신학, 법학, 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 수여되던 학위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박사 학위가 정규 학위로 발전된 것은 독일과 영국에서였으며, 19

세기 중반에 이르러 독일은 근대적인 대학원 교육의 형태를 갖추어 학자 양성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같은 독일과 영국의 대학원 제도는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의 고등 교육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독일 대학원의 철학부에서 수여하던 철학 박사 학위 제도를 미국이 도입하면서 독일 대학원에서 수여하던 법학, 신학, 의학 박사 학위가 전문학위(profession-oriented degree)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 이후 세월의 흐름 속에 직업 및 직종의 사회 분화 현상과 각 분야에서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1) 임천순 외, 『대학원 제도의 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1992, p.35.

학술 학위의 성격을 띤 Ph. D. 이외에 소위 전문 학위로 일컬어지는 professional degree 과정이 여러 대학에 출현하게 되었다. 1786년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College and Academy of Philadelphia (현재의 Pennsylvania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필두로 치의학, 수의학, 약학 분야 등으로 전문 학위 과정이 세분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는 1921년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육학 박사(Ed. D.)가 수여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의 다른 대학원으로 확산되었다. 즉, 기존의 철학 박사 학위에 상응하는 직업 전문 학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²⁾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신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등과 고려대학교의 MBA 과정인 경영대학원의 출현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린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이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체 및 사회 각 분야별 요구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오늘날은 선진 여러 나라들에서 전문 학위 과정이 대학 캠퍼스로부터 분리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체들이 종업원들을 대학에 보내 위탁 교육을 시키던 형태에서 벗어나 종업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로부터 대학교수들을 기업체의 강의실로 불러들여 대학원 교육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 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번 교육개혁 위원회가 발표한 단설대학원 제도 역시 이 같은 선진국들의 전문 학위 과정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혹은 산업 현장의 실무형 석·박사 양성의 필요성에서, 그리고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보편화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의 현직교육 차원에서 단설대학원을 창안하게 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단설대학원과 관련한 국가별 동향을 요약 기술하고, 외국 대학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단설대학원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외국의 단설대학원 설치 사례

외국의 단설대학원을 소개한다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로 생각된다. 우선은 외국이라는 용어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설치 사례와 관련하여 어느 단설대학원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필자에게 주어진 지면의 양을 고려한 주관적 범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

미국에 설치된 단설대학원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대학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학부의 학과와 연계됨이 없이 설치·운영되며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을 들 수 있고, 두번째 유형으로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동 차원에서의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2) 임천순 외, 상계서, p.36.

운영되는 대학원 프로그램 형태가 있으며, 세번째 유형으로는 특수 목적 아래 기업체나 비영리 재단에서 학부 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 목적 대학원 형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여기서 첫번째 유형의 단설대학원은 국내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원과 같은 형태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널리 알려지고 학부 학생수보다는 대학원 학생수가 훨씬 많은 중서부 지역의 시카고 대학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대학의 경우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원을 열거해 보면 Divinity School, Graduate Program in Health Administration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Law School, School of Medicine,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등이 있으며, 동부 지역의 하버드 대학 또한 일반 대학원에 해당하는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이외에 전문대학원으로 Divinity School, Extension Schoo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Law School, Medical School, School of Dental Medicine,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와 다른 점은 국내 전문대학원이 석사 학위만을 수여하는 데 비해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수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국내 많은 사람들이 특수대학원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교육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두번째 유형의 단설대학원 형태로는 미국 유수의 기업체들이 사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주변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들 수 있는데, 일례로 세계적 기업인 모토롤라 회사의 본부는 시카고 지역에 있으면서 일리노이 대학(시카고)과 연계하여 Graduate Engineering Programs를 운영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다. 종전에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현재는 회사 자체가 강의실을 확보해 놓고 직원들의 업무 일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에 대학교수들을 회사에 출강하도록 하거나 영상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코넬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내 47개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영상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대학인 The 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를 설치하여 대학원 과정과 자격증 과정 그리고 비정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특이한 형태의 미래형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모토롤라 회사가 있는 아시아 지역들에게까지 시험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③ 그러나 외국 단설대학원 설치 사례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형태의 대학원이 앞서 제시한 세번째 유형의 단설대학원이라 여겨진다. 오늘날 기업의 형태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고, 기업체나 각종 연구소 등에 두뇌 집단이 대학 못지 않게 형성된 기관에

서는 대학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적으로 대학원 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하여 특수 분야의 특수 목적 인력을 최적의 여건 속에서 길러 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형태의 단설대학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대학 몇 곳을 우선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있는 Arthur D. Little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에서는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1995년 현재 68명(이 중 여학생 14명)의 정규 학생과 전문인들이 등록하고 있다. 이들 대학원생 가운데 59명이 외국인 학생들 이고, 그 외 9명은 남미계와 미국 인디언의 소수 민족 출신으로 사실상 미국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대학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서의 특이한 점은 전임 교수가 한 명도 없고, 24명의 교수는 모두가 시간강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중앙 도서관을 비롯하여 캠퍼스 내에 7개가 마련되어 있고 장서는 9천 2백 권 정도로 수적인 면에서 소량이지만, 보스턴 지역 도서관들과 친소시엄을 이루고 있어 컴퓨터를 통해 타도서관의 문헌 검색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장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본래 이 대학원 과정은 전문 경영 자문 연구소의 하나로 10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72년 학위 수여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학위 프로그램은 나이지리아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실제 교육과정은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다목적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

다. 이 연구소에서는 11개월 동안 50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경영, 경제학, 산업 발달 또는 에너지 경영의 세 분야에서 최소한 700시간의 강의를 받아야 하며 교수진은 정시제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종합병원 건강 연구소(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stitute of Health Professions)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추진·설립되었다. 이 학위 과정의 주목적은 건강 치료의 진보적인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최신 훈련 교육과정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성 및 부차적인 학위 수여 계획 과정 수립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77년에 영양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언어병리학, 건강 치료에서 사회사업 석사 학위 과정 등의 5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었고, 1982년 현재 11명의 전일제 교수와 30여 명의 정시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제계, 특히 경제 4단체와 교육계 및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1982년 사학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IUJ)을 들 수 있다. 이 대학원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현장 경력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수진으로는 국제관계학 분야 24명, 국제경영학 분야 15명의 전임교수와 14명의 시간제 교수 그리고 59명의 전임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연간 예산액은 일화 16억 2천4백만 엔으로 이 가운데 학생 수업료는 3억 7천3백만 엔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진흥회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사업 수입금 및 기타 경비로 충당 운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총 학생 194명 가운데 기업 파견 학생 75명, 일본인 사비 학생 8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1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의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해 외국의 저명 교수, 학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해외 유명 석학과 경영인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 지역에서는 스웨덴 경제인 연합회에서 경제·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적인 민간 단설 전문대학원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가 있으며, 스위스에는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소인 동시에 교육기관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IMD)가 있고,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INSEAD를 해외 단설대학원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내 교육개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설대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형태의 단설대학원을 위해 다음의 두 대학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록펠러 대학

뉴욕 맨해튼에 자리하고 있는 이 대학은 학부 과정 없이 Ph. D.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이며,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학위 과정은 Ph. D. Program in the Life Sciences와 Ph. D. Program in Physics 그리고 Tri-Institutional M. D.-Ph. D. Pro-

gram, Tri-Institutional Training Program in Vision Research의 네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해 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분야의 교과 영역에 뛰어난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학이 허용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연간 17,600 달러에 해당하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기숙사비는 물론 책값과 연구활동비 및 기타 국내·외 학술활동에 참가하는 비용까지도 지급해 주는 완벽한 장학 대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면 전일제 학생으로 학업과 연구에만 몰두해야 하며, 기타 과외 일이나 부업 활동을 금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실험에 몰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은 물론 임상 실험과 동물 연구센터가 대학 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를 위해 Dutchess County에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약 183,700 권에 달하는 전공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연구와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래 록펠러 대학은 과학·연구와 응용을 통해 인류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1901년 존 록펠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는 the Rockefeller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로 출발하였다. 이후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과학 분야에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닥 지원자들이 몰려들게 되자, 1954년에 의학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수 정예 엘리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 오늘의 록펠러 대학이 되었다. 따라서 이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에서 보이는 학과의 개념은 없으며, 그 대신에 실험실이 있을 뿐이다. 실험실이 다른 대학

학과에 준하는 기본 단위인 것이다. 1995년 말 현재 이 대학에는 131명의 박사 과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74명의 Post-doctoral Scholars와 142명의 교수들이 함께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특이한 과정으로는 앞서 언급한 Tri-Institutional M.D. - Ph.D. Program과 아울러 Tri-Institutional Training Program in Vision Research를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1991년에 록펠러 대학과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Sloan-Kettering Institute가 공동으로 M.D.-Ph. D. 과정을 공동 개설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학부나 석사 과정이 없는 록펠러 대학은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M. D.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후 본인의 전공 영역에 따라 Rockefeller, Cornell 그리고 Sloan-Kettering Institute로 가서 Ph. D. 과정을 하도록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전공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교수 및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최초 두 학기 동안에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이후 3~4년 동안은 3개 교육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The RAND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단설대학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모니카에 있는 RAND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를 소개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대학은 RAND Corporation이라는 미국 행정부, 특히 Pentagon의 정책 컨설팅 프로

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명칭 RAND가 의미하는 것은 Research and Development로부터 나온 이름이라고 한다. 아무튼 RAND 대학원에 들어서면 우리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대학 혹은 대학원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출입증이 필요하며, 사전 예약 없이 외부 방문객이 불쑥 대학 건물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지식과 정보의 외부 노출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곳이기도 하다. 정책학 분야의 대학원 박사 과정과 포스트 닥 과정의 지원자만을 선발하는 이 대학원에서는 학부 과정은 물론 석사 과정의 학생조차도 모집하지 않으며, 입학 사정에서 타대학원과 달리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간주되는 것은 현장 경험이라는 점이다.

즉,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적 지식만이 아닌 현실 직업 세계의 현장 경험을 통한 이론과 경험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교육적 강조점은 입학 이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구 조건에도 강조되고 있다. 즉,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위 OJT(on-the-job training) 과정을 충족해야 한다. 필자가 만난 이 대학 부총장에 의하면, 입학에서 졸업시까지 통산 40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학은 앞서 예로 든 록펠러 대학처럼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재정 지원은 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여 소수 정예의 엘리트 교

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 내외의 지원자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들 지원자 가운데 10~13명 정도만 입학이 허가된다고 한다. 수업료는 1995~1996년도 현재 연간 14,000달러이며 RAND 회사의 직원이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을 경우에 한해 1,000달러의 학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입학한 첫해와 2년차 기간중에 1년에 155일을 일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중 9개월 동안은 half-time project의 참가와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전일제로 일해야 한다.

이 대학의 비싼 수업료와는 달리 대학원생과 기혼자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의료보험은 RAND 회사에서 회사의 의료보험 경비로 처리해 주고 있어 실제 의료보험과 관련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① Quarter-system 하에서 20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가운데 17개 교과를 이수하면 박사 학위 종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② 해마다 요구되는 on-the-job training을 졸업시까지 최소 400시간 이수해야 하며, ③ 타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실시되는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④ 논문을 쓰고 심사에서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대학원으로 하버드 대학의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 사례는 지면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적 요인과 특수 분야의 특별한 교육 목적을 충족 내지 실현시키기 위한 외국의 단설대학원 설치 및 운영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선 이들 형태를 요약하면 교육 목적과 수여 학위 형태에 따라 단설대학원과 단설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기업체나 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는 형태와 기존의 대학들에서 학부 과정과 관련 없이 학자 양성 과정이 아닌 이론과 실무를 겸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전문대학원을 들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Ph. D. 학위를 수여하는 단설대학원은 그 교육 목적이나 운영의 형태가 거시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기여 내지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하여 소수 정예의 매우 엄격한 형태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단설전문대학원 형태에서는 현장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단설대학원들이 지닌 공통점은 기존의 상아탑 속에서의 학문 연구와 전수의 형태를 벗어나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매우 발 빠른 교육제도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점은 근자에 이르러 학문의 다원화 및 학제간 교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 대학들에서는 학부에서의 복수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도 복수 학위 취득 프로그램

이 널리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일례로 예일 대학의 경우 경영학과 환경학을 동시에 수강하도록 하여 졸업시 MBA와 MEM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소재 Claremont Graduate School의 경우 경영학과 종교학의 복합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졸업시 경영학 석사(MBA)와 철학 박사(종교학) 학위(Ph. D.)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보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을 비롯한 미국내 24개 대학원에서는 신학과 사회사업을 동시에 복합 학위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복합 학위 과정(Combined-Degree Programs)의 종류와 이들 복합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내 수많은 대학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국내 대학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설 전문대학원 과정의 운영에서도 긴밀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 학위 과정의 운영 또한 고려해 볼 만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향후 국내 단설대학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치분야의 결정과 설치인가 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구와 규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인가 이후 단설대학원 운영의 충실성을 위한 사후 평가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학위 수여 기관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부실한 단설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오성삼/ 건국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시카고)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초청으로 프로그램 평가분야의 국제연수과정을 수료하였으며, '93년도 국비 해외 파견 교수로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1년간 객원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 『교육과정 및 평가의 이해』와 『교육학의 이해』가 있으며, 메타 분석과 관련한 논문이 다수 있다.